



## 시장 급락 쇼멘트

### 3월 4일 하락의 진실

투자전략팀 퀀트 안현국 hg.ahn@hanwha.com 3772-7646

코스피 6000p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다. 1)밸류업·산업재로 3000p 돌파, 2)레거시 반도체 폭등으로 4000p 돌파, 3)포모(FOMO, 뒤늦게 들어온 돈) 자금 유입으로 5000p를 돌파했다.

이 중 가장 취약한 고리는 포모 자금이다. 올해 들어 뒤늦게 진입한 대내외 투자자들은 불과 이틀 만에 -20%에 가까운 하락을 겪었고 매수세 약화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. 반도체는 DRAM·NAND 가격이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실적이 꺾일 가능성은 낮고, 밸류업 정책 역시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과제인 만큼, 이 두 축이 흔들린 탓이라고 보기 어렵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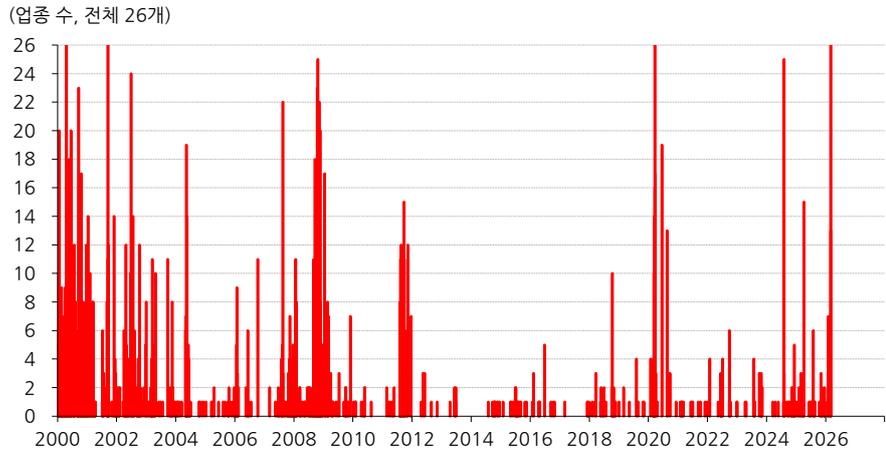
어제 하락에서 읽어야 할 부분은 '모든 업종이 5% 이상 동반 하락했다'는 사실이다. 보통의 하락장에서도 일부 업종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지만, 전 업종이 5% 이상 일제히 내리는 일은 매우 드물다. 자금 이동 혹은 포트폴리오 조정보다 주식 자산 전체를 현금화하는 패닉셀에 가깝기 때문이다.

상장사(코스피+코스닥) 26개 업종 전체가 5% 이상 동반 하락한 날은 지난 26여 년간 단 3일뿐이다. 1)2000년 4월 17일은 미국 IT 버블과 금리 인상 우려로 사상 첫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날이다(코스피 -11.6%, 코스닥 -11.4%). 2)2001년 9월 12일은 미국 9·11 테러 여파로 어제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일일 낙폭을 기록한 날이다(코스피 -12.0%, 코스닥 -11.6%). 마지막으로 3)2020년 3월 19일은 코로나19 공포로 코스피가 장중 최저점인 1439p를 기록한 날이다(코스피 -8.4%, 코스닥 -11.7%). 전 업종이 5% 이상 하락한 세 번의 사례 이후 주가는 대체로 바닥권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.

트럼프 집권 기간 중 코스피가 가장 크게 하락했던 두 시점은 코로나19 당시 고점 대비 -35.7%, 작년 4월 관세 쇼크는 고점 대비 -20.7%. 현재 -19.2%로 작년 관세 쇼크 수준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진행됐다. 유가 상승이 지속될수록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편함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. 미 해군의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 등과 같은 조치가 이를 방증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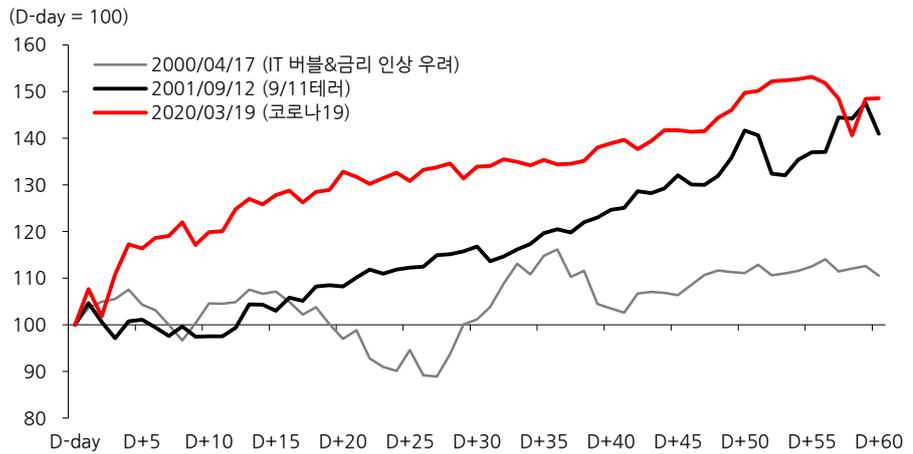
따라서 5,000p 근방에서는 대기 자금이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자리로 본다. 추가 변동성이 남아 있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분할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. 5,000p 아래에서 오래 머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. 반등 이후에는 반도체와 IT H/W(소부장), 자동차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를 선호한다. 약 5개월간 기간 조정을 보여 온 미국 IT의 회복이 예상되고 코스닥으로의 자금 유입과 정책적 노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[그림1] 상장사(코스피+코스닥) 26개 업종 중 일간 수익률 기준 5% 이상 하락한 업종 수



자료: WISEfn, 한화투자증권

[그림2] 26개 업종 모두 5% 이상 하락한 후, 60 영업일간 상장사(코스피+코스닥) 주가 추이



자료: WISEfn, 한화투자증권

[ Compliance Notice ]

(공표일: 2026년 3월 5일)

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,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.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(안현국)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.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